

리좀(Rhizome) 이론의 연결(net) 특성에 기반한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표현 컨셉의 확장

Expanding Visual Communication Design Expression Concepts Based on the Connectivity Characteristics of Rhizome Theory

주 저 자 : 천 양 (cheon-yang) 동의대학교 디자인조형학과 박사과정

교 신 저 자 : 양재범 (Yang, Jae Bum) 동의대학교 디자인조형학과 교수
jbyang@deu.ac.kr

<https://doi.org/10.46248/kidrs.2026.2.504>

접수일 2026. 05. 20. / 심사완료일 2026. 05. 31. / 게재확정일 2026. 06. 08. / 게재일 2026. 06. 30.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potential of expanding expressive concepts in contemporary visual communication design through the connection characteristic of Rhizome theory. As digital media transforms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information, hierarchical and linear design structures are being replaced by non-hierarchical and network-based communication models. Using Rhizome theory as an analytical framework,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s among visual elements and the generation of new meanings. Design cas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six principles of Rhizome theory. The findings show that visual elements can form flexible connections across different media and contexts, creating new meanings. Rhizomatic connectivity encourages user participation, supports nonlinear relationships among information, and expands design concepts in contemporary visual communication design.

Keyword

리좀 이론(Rhizome Theory), 비선형 디자인(Nonlinear Design), 연결(net)

요약

본 연구는 리좀(Rhizome) 이론의 연결 특성을 중심으로 현대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표현 개념 확장 가능성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으로 정보의 생산·소비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위계적·선형적 디자인 구조는 점차 해체되고 있으며, 비계층적 네트워크 기반의 소통 방식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질 들뢰즈(Gilles Deleuze)와 펠릭스 가타리(Félix Guattari)의 리좀 이론을 분석 틀로 설정하고, 연결성, 이질성, 다양체, 의미단절, 지도제작, 데칼코마니의 원리를 중심으로 디자인 사례를 유형화하여 구조와 표현 전략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시각 요소들은 고정된 의미 체계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매체와 맥락 속에서 유동적으로 연결되며 새로운 의미를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좀적 연결 특성은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고 정보 간 비선형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디자인 개념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대 시각디자인은 더 이상 단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폐쇄적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요소 간 관계 형성과 의미 생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방적 네트워크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 리좀(Rhizome)의 연결성과 시각 디자인

- 2-1. 리좀(Rhizome)의 개념
- 2-2. 리좀(Rhizome)의 6가지 원리와 '사과의 연결(Net)'
- 2-3. 리좀(Rhizome)의 시각 커뮤니케이션 표현 개념 확장

3. 리좀적 디자인의 연구 방법 및 분석 틀

- 3-1. 연구 방법 및 분석 틀
- 3-2. 리좀 6원리 기반 분석 프레임워크
- 3-3. 시각디자인에서의 리좀 구조 분석

4. 리좀적 디자인 표현 개념의 확장 사례

- 4-1, 4-2, 4-3, 4-4, 4-5, 4-6 사례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의 확산과 함께 정보의 생성과 소비 방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또한 기존의 선형적 전달 구조에서 벗어나 복잡적이고 비선형적인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과거의 시각 디자인이 명확한 위계와 질서를 기반으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오늘날의 디자인은 다양한 정보가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 환경 속에서 의미가 생성·확장되는 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수목적(arborescent) 사고 방식의 한계를 드러내며, 단일 중심과 위계적 질서를 해체하는 새로운 사고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대한 이론적 대안으로 제시되는 리좀(Rhizome) 이론은 탈 중심화, 다중 연결, 비위계적 관계를 핵심 원리로 하여, 현대의 네트워크 기반 사회 구조와 높은 상응성을 가진다. 특히 리좀 이론에서 강조되는 '연결(connectivity)'의 개념은 다양한 노드 간의 자유로운 접속과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이는 현대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이미지, 텍스트, 상징 요소 간의 복합적 관계 형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나아가 이러한 연결 중심의 구조는 고정된 의미 전달을 넘어, 수용자의 능동적 해석과 다층적 의미 생성을 유도하는 중요한 디자인 원리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드뢰즈(Deleuze)와 가타리(Guattari)의 리좀 이론을 주요 분석 프레임워크로 채택한다. 특히 리좀 이론의 핵심 원리인 연결성(connectivity)을 중심으로, 비선형적이고 네트워크 기반의 디자인 사고 구조를 이론적·실증적으로 규명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수목형 구조에 기반한 위계적 소통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현대 시각 디자인에 내재된 비위계적·수평적 네트워크 구조를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이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 간 경계가 점차 해체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소통 질서와 의미 생성 방식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둘째, 리좀 이론의 핵심 개념인 연결성에 주목하여, 시각 언어가 단일한 의미 체계에 고정되지 않고 이질적 기호들과의 결합을 통해 확장적으로 재구성되는 '확장적 내러티브'의 형성 과정을 분석한다.

셋째, 현대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패러다임이 '전달'에서 '연결과 생성'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향후 네트워크 기반 융합 디자인의 구축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러한 연구의 배경에서 출발한 연구문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리좀 이론의 철학적 배경과 6가지 원칙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리좀적 사유와 수평적 사고(Lateral Thinking)의 상관관계는 무엇이며,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어떠한 분석적 특성을 갖는가?

〈연구문제 3〉 리좀적 사고의 6원칙이 적용된 시각 디자인의 사례와 표현 특성은 무엇인가?

세 가지 연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론적 고찰과 사례분석을 병행하는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연구문제 1〉은 리좀 이론의 철학적 배경과 여섯 가지 원칙을 규명하기 위해 들뢰즈와 가타리의 원전을 비롯한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고찰 방법을 활용하였다. 개념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정리하고, 각 원칙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2〉는 리좀적 사유와 수평적 사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 인지이론 및 디자인 사고 이론을 바탕으로 한 비교·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두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 시각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정리하였다.

〈연구문제 3〉은 리좀적 사고의 여섯 가지 원칙이 적용된 시각 디자인의 사례와 표현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사례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사례는 2010년 이후 발표된 광고디자인, 아이덴티티 디자인, 패키지디자인, 편집디자인 및 웹디자인 분야의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례는 리좀의 여섯 가지 원리를 기준으로 유형화하였으며, 연결성, 이질성, 다양체, 의미단절, 지도화, 데칼코마니의 특성이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고 표현 컨셉으로 확장되는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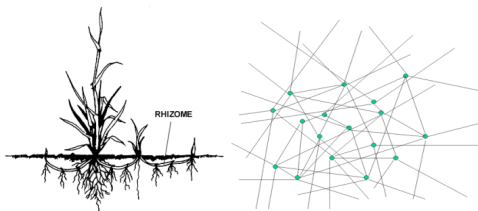
이를 통하여 리좀적 사고 기반의 광고 및 시각 디자인이 가지는 우월성과 유효성을 규명한다. 또한 향후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시각 디자인이 취해

야 할 '관계 중심적 시각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위한 디자인 사고 방법의 유연한 연결성 제안 한다.

2. 리좀의 연결성과 시각 디자인

2-1. 리좀(Rhizome)의 개념

리좀 이론(Rhizome Theory)은 프랑스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 들뢰즈(Gilles Deleuze)와 가타리(Félix Guattari)가 저서 『천 개의 고원(A Thousand Plateaus)』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이들은 식물학에서의 '근경(根莖, rhizome)' 즉 생강, 잡초, 감자 등의 지하줄기에서 영감을 받아, 이를 서구 사유 전통 속에서 지배적이었던 수목적 사고(arborescent thinking)에 대한 대안적 사고 모델로 확장하였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텍스트에서 수목 구조를 '의미와 주체화의 중심을 지닌 위계적 체계로서, 그 중심의 자동기계는 조직화된 기억과 같다'고 설명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리좀이 고정된 시작점이나 종점을 가지지 않으며 항상 사물 사이의 '중간 상태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 구조는 중심이나 기원에 기반을 두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요소들 간의 동적 관계에 의존한다. 혈연적 계승과 위계질서를 지닌 수목 구조와 달리, 리좀은 비동질적이며 비인과적인 횡적 연결을 특징으로 하며 다중 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확장된다. 또한 '그리고.....그리고.....'라는 연결 논리를 통해 본질적 판단을 대체하며 탈 중심화, 비위계성, 개방적 생성성을 지닌 비선형 구조를 나타낸다.¹⁾ 이처럼 리좀은 시작과 끝이 존재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가변성과 역동성을 지닌 유목적인 체계로 설명된다.²⁾



[그림 1] 트리와 리좀의 구조

1)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앞의 책, pp.54-55.

2) 송경희, & Song, K. H., 리좀의 관점에서 본 현대 패션의 모듈성에 관한 연구, 2011, p.6

리좀(rhizome)은 '땅속줄기'를 뜻하는 말이다. 잔디의 뿌리를 보면 하나의 중심 뿌리에서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줄기가 서로 얹히고 연결되며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회사의 직원이자 동호회의 지도자이며, 국가의 구성원인 동시에 특정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리좀에는 시작과 끝, 중심과 주변, 상하의 위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요소는 수평적으로 연결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들뢰즈와 가타리의 리좀 개념을 시각디자인에 적용하면, 이는 위계적이고 중심화된 전통적 디자인 구조를 넘어 다양한 시각 요소들이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 기반의 디자인 패러다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이미지, 텍스트, 인터랙션, 미디어 등 다양한 요소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의미를 생성한다. 또한 정보가 하나의 중심에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참여와 해석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연결되고 확장된다. 따라서 리좀적 시각디자인은 개방성, 다중성, 연결성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의미 생성과 능동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현대 디자인의 중요한 사고 방식이라 할 수 있다.

2-2. 리좀(Rhizome)의 6가지 원리와 시각 디자인

2-2-1. 리좀(Rhizome)의 6가지 원리와 시각 디자인

이러한 관점에 기반을 두어, 학자들은 리좀 이론이 '비선형성'과 '탈중심성'을 통해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분야에서도 그 사유의 영향이 여러 경로를 통해 드러난다고 본다. 공고한 위계질서를 유지하던 근대사회와 달리, 현대사회는 기존의 위계와 권위가 해체되며 파편화된 구조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변화는 단순한 해체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방식의 연결과 관계 맺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리좀적 사유와 맞닿는다. 이렇게 파편화된 고원은 상하좌우의 위계 없이 상황과 목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연결되거나 분리된다. 이 과정에서 A와 B의 결합은 단순한 합(A+B)이나 하나의 통일된 결과(AB)로 귀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C라는 전혀 새로운 가능성으로 '접속'된다. 이 특성은 본 논문의 핵심 주제인 리좀(Rhizome) 이론의 연결(net)적 속성을 바탕으로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서의 다각적 사고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들뢰즈와 가타리는 리좀의 원리를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사고와 관련하여 여섯 가지로 구분해 제시한다. 즉, ① 연결의 원리, ②

이질성의 원리, ③ 다양체의 원리, ④ 의미 단절의 원리, ⑤ 지도 제작의 원리, ⑥ 데칼코마니의 원리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여섯 가지 원리는 위계적이거나 단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절되지 않은 채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며, 상호 관계 속에서 유동적으로 구성된다.

1) 연결접속의 원리(Principle of Connection)

리즘은 어떤 지점이라도 다른 지점과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결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리즘적 사고를 통한 디자인 개념트는 디자인 요소들이 서로 다른 매체, 정보, 기능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와 경험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리즘속성 디자인 컨셉 분석 질문

시각 요소들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단일 흐름인가, 다중 경로인가?

사용자는 다양한 진입점을 가지는가?

2) 이질성의 원리(Principle of Heterogeneity)

리즘에서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요소들이 자유롭게 연결되고 결합할 수 있다. 따라서 리즘적 사고를 통한 디자인 개념트는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 등 이질적인 요소들의 혼합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표현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분석 질문

서로 다른 시각 요소들이 어떻게 공존하는가?

이질적 요소 간 위계가 존재하는가?

충돌이 의미 생성에 기여하는가?

3) 다양체의 원리(Principle of Multiplicity)

다양체는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연결되어 형성되는 비선형적 시각디자인 구조를 의미한다. 시각디자인은 하나의 고정된 체계가 아니라 이미지, 텍스트, 사용자 반응 등이 결합된 열린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리즘적 사고를 통한 디자인 개념트는 다양한 이미지, 기호, 매체가 비위계적으로 연결되어 복수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가변적 디자인 방식으로 나타난다.

분석 질문

디자인은 하나의 의미만을 전달하는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구조인가?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가, 변형 가능한가?

4) 탈의미작용적 단절의 원리(Asignifying Rupture)

리즘적 사고를 통한 디자인 개념트는 기존의 의미 체계나 서사 구조가 단절되더라도 새로운 연결과 해석이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각 요소들은 단일한 의미 체계에 종속되지 않은 채 분리와 재구성을 반복하며, 이를 통해 전체 구조는 해체되기보다 확장된다. 이러한 구조는 관람자의 해석과 참여에 따라 다양한 의미 생성 과정을 촉진함으로써 개방적이고 다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분석 질문

시각 흐름이 의도적으로 끊어지는가?

단절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가?

기존 의미 체계를 해체하는가?

5) 지도 만들기의 원리(Principle of Cartography)

리즘적 사고에 기반한 디자인은 시각 요소를 정해진 틀에 따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연결하고 변형함으로써 개방적 구조를 형성한다. 이와 관련하여 리즘의 지도그리기 원리는 시각디자인의 레이아웃 시선 경로에 적용될 수 있다. 광고와 웹디자인에서는 사용자가 정보를 탐색하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시선을 유도하는 안내 체계가 구성되며, 이는 다양한 경로와 연결을 허용하는 리즘적 특성을 보여준다.

분석 질문

사용자가 구조를 탐색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가?

디자인은 열린 시스템인가?

경로가 고정되어 있는가?

6) 데칼코마니(Principle of Decalcomania)

리즘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 개념트는 기존 구조를 단순히 복제하거나 전이하는 방식이 아니라, 패턴의 변형과 알고리즘 기반 생성, 그리고 반복 속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를 재생산하는 특징을 지닌다.

분석 질문

디자인은 단순 복제인가, 변형인가?

반복 속에서 차이가 생성되는가?

원형과 결과물의 관계는 무엇인가?

[표 1]은 리즘의 원리를 디자인 관점에서 해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비선형적 사유의 특징은 디자이너의 역할과 방법론에 적용된다. 둘째, 리즘은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비선형적 디자인 표현 특성으로 작용한다. 셋째, 비선형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다양성은 디자인 표현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표 1] 리즘 이론의 기본 원칙의 디자인적 해석

유형	특징
	디자인적 해석
연결의 원리 Principe de connection	리즘의 어떤 지점이든 다른 어떤 지점과도 연결될 수 있다. “연결과 접속의 사고” 수평적 환경은 디자인이 가변성을 이용하는데 필수 구조적 조건이다.
이질성의 원리 Principe d'hétérogénéité	서로 다른 성격의 요소들(언어적, 생물학적, 정치적 등)이 한데 섞여 연결될 수 있다. “하이브리드 결합 사고” 리즘은 동일한 것들의 결합이 아닌 이질적인 것들의 으로 이루어진다.”
다양체의 원리 Principe de multiplicité	리즘은 주체나 객체로 환원되지 않는 ‘다양체’ 그 자체다. “고정된 정의를 거부하는 사고” 시각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서 단일한 의미 전달을 지양하고, 다중적 해석과 가변적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사고로 확장된다.
의미단절의 원리 Principe de rupture assignifiante	리즘은 어느 한 부분이 끊어지더라도 그 지점에서 다시 새로운 선이 뻗어 나온다. “의미표현의 탈고착화 사고” 디자이너의 개입을 통하여 다양성을 유도하지만 고정된 가치의 목적을 두면 안 된다.
지도제작의 원리 Principe de cartographie	리즘은 이미 정해진 구조를 복제하는 ‘본뜨기(Calque)’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지도(Carte)’ 그리기와 같다. “중심의 다각화 사고” 지도는 단순한 복사가 아닌 개체들의 연결과 다양한 관점으로 수정이 가능한 확장의 표현이다.
데칼코마니의 원리 Principe de décalcomanie	본뜨기 방식(수묵형 사고)이 리즘적 지도 위에 덧씌워질 수는 있지만, 리즘 자체는 스스로를 복제하지 않는다. 지도는 항상 외부와 연결되어 생성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가 리즘의 여섯 가지 원리에서 개념적 근원을 찾고자 하는 이유는, 리즘이 수직적·선형(linear) 구조가 아닌 수평적·비선형(non-linear) 구조

에서 생성되는 사고 체계이기 때문이다.

2-2-2. 리즘 원리와 시각 커뮤니케이션 표현 특성의 대응 근거

본 연구는 리즘의 여섯 가지 원리를 시각적 표현 형식과 직접적으로 동일시하지 않는다. 대신 각 원리가 지닌 구조적 논리와 의미 생성 방식을 분석하여 이에 대응하는 디자인 표현 개념을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연결성은 노드 간 자유로운 접속과 관계 형성을 강조하므로 하이퍼 링크드 비주얼(Hyper-linked Visual)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질성은 서로 다른 속성과 매체의 결합을 강조하므로 ‘하이브리드(Hybrid)’라는 표현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다. 또한 다양체는 ‘플렉서블 아이덴티티(Flexible Identity)’, 의미단절은 ‘글리치 에스테틱(Glitch Aesthetics)’, 지도화는 ‘오픈 엔디드 레이아웃(Open-ended Layout)’, 데칼코마니는 ‘리컨텍스트화(Re-conceptualization)’과 대응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리즘 원리 → 구조 논리 → 디자인 표현 개념이라는 변환 과정을 통해 분석 체계를 구축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리즘의 여섯 가지 원리를 서로 독립된 개념으로 보기보다, 모두 ‘연결(net)’의 확장적 작동 방식으로 이해한다. 즉 연결성은 직접적 연결, 이질성은 이질적 연결, 다양체는 다중 연결, 의미단절은 단절 이후의 재연결, 지도화는 경로의 연결, 데칼코마니는 맥락의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결(net)은 여섯 가지 원리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작용하며, 본 연구는 이를 현대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관계적 생성 구조로 해석한다. 따라서 연결(net)은 본 연구의 분석 틀을 구성하는 핵심 이론적 기반이 된다.

2-3. 리즘(Rhizome)의 시각 커뮤니케이션 표현 컨셉 확장

리즘 이론의 확장된 원리들은 시각 디자인에서 고정된 형식과 의미를 해체하고, 생성적이며 개방적인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개념적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다양체, 무의미적 단절, 지도 제작, 데칼코마니(데칼코마니)와 관련된 원리는 다음과 같은 크리에이티브 컨셉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1) 연결의 원리(Principle of Connection)

리즘의 연결의 원리는 모든 지점이 다른 어느 지점과도 연결될 수 있으며, 고정된 시작점이나 종결점이 존재하지 않는 비선형적 구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은 ‘하이퍼-링크드 비주얼(Hyper-linked Visual)’이라는 크리에이티브 컨셉으로 확장될 수 있다.³⁾ 이는 디자인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선이나 암시적 흐름을 통해 서로를 연결하며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시선은 사전에 설정된 경로를 따르기보다, 다양한 방향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전체 맥락을 구성하게 된다.

시각적 전략으로는 우선 비선형적 레이아웃이 있다. 이는 기존의 그리드를 해체하거나, 요소들이 유기적인 선적 구조로 얹혀 있는 구성을 통해 구현된다.⁴⁾ 또한 연쇄적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하여 글자의 일부가 다음 이미지나 텍스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시각적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다. 나아가 인터랙티브 흐름을 도입할 경우,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입력에 따라 연결 구조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동적 그래픽으로 확장될 수 있다.

2) 이질성의 원리(Principle of Heterogeneity)

이질성의 원리는 서로 다른 성질을 지닌 기호, 매체, 담론 등이 복합적으로 얹히며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생성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 개념은 ‘하이브리드(Hybrid)’라는 크리에이티브 컨셉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이는 상이한 시각 언어와 매체를 의도적으로 이종결합하거나 충돌시킴으로써, 단일한 표현으로는 도출하기 어려운 다층적 의미를 생성하는 접근 방식이다.

디자인 응용에서는 아날로그적 질감과 디지털 글리치 효과, 실사 이미지와 벡터 그래픽 등 서로 상충하는 요소들을 병치하여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유도할 수 있다. 시각적 전략으로는 이질적 콜라주가 있으며, 이는 서로 다른 질감과 형식을 지닌 요소들을 한 화면에 배치함으로써 긴장감과 대비를 형성한다. 또한 미디어 믹스매치를 통해 서로 다른 시공간적 맥락을 지닌 요소들을 결합할 수 있으며, 예컨대 전통 회화의 여백과 디지털 픽셀 이미지를 병치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다중 레이어링 기법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정보 층위를 중첩시킴으로써, 새로운 의미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⁵⁾

3) George P. Landow, 《Hypertext - The Convergence of Contemporary Critical Theory and Technology》, 1991, p.3

4) 최진희 (CHOI JIN HEE). 해체주의 건축 이론과 색채표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논문집, 2008, p.25

3) 다양체의 원리(Principle of Multiplicity)

리즘에는 단일한 중심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많은 선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개별 요소들이 결합하여 전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복잡한 관계망 자체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은 ‘플렉서블 아이덴티티(Flexible Identity)’라는 크리에이티브 컨셉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는 고정된 단일 로고나 심볼에 의존하지 않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 형태가 변화하면서도 일관된 브랜드 인상을 유지하는 가변적 디자인 시스템을 지향한다.⁶⁾ 시각적 전략으로는 생성적 디자인, 데이터 시각화의 중첩, 다층적 레이어링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동일성과 차이를 동시에 드러내며, 유동적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4) 의미 단절의 원리(Principle of Assignifying Rupture)

무의미적 단절의 원리는 리즘의 어느 지점이 단절되더라도 그곳에서 새로운 연결이 생성되는 복원력과 변이성을 강조한다. 즉, 단절은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의 확장을 의미한다. 이 원리는 ‘글리치 에스테틱(Glitch Aesthetics)’ 또는 해체와 재구성이라는 크리에이티브 컨셉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의도적인 오류나 이미지의 파손을 통해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시각적 미학을 생성하는 접근 방식이다.⁷⁾

디자인 응용에서는 단절된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시각 요소가 등장하도록 구성하거나, 이미지의 불완전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시각적 전략으로는 데포르마시옹(deformation), 콜라주 기반의 파편화, 비정형적 절단과 재연결 등이 있다.

5) 지도 제작의 원리(Principle of Cartography)

지도 제작의 원리는 기존의 경로를 모방하는 ‘데칼코마니(tracing)’와 달리, 스스로 경로를 생성하며 영역을 확장하는 실험적 태도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오픈 엔딩 레이아웃(Open-ended Layout)’이라는 크리에이티브 컨셉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는 완결된

5) Manovich Lev, The Language of New Media, Cambridge, MA: MIT Press., 2001, p.51

6) 김지영 / Kim Ji-yeong, 플렉서블 아이덴티티(Flexible Identity) 브랜드가 창의성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Journal of Communication Design, Jul 31, 2025, pp.563-564

7) Menkman R, The Glitch Moment(um), Amsterdam: Institute of Network Cultures, 2011, pp.26-43

결과물로서의 디자인이 아니라, 사용자 참여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의미가 생성되는 과정 중심의 디자인을 지향한다.⁸⁾⁹⁾ 시각적 전략으로는 전통적인 그리드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배치, 여백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시선 유도, 그리고 인포그래픽 요소의 유기적 흐름 구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식은 사용자 경험을 능동적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6) 데칼코마니의 원리(Principle of Decalcomania)

들뢰즈는 ‘데칼코마니(tracing)’를 리즘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았으나, 동시에 데칼코마니가 지도 위에서 재배치될 때 리즘적 변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는 기존 체계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맥락 속에서 재구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원리는 ‘리컨텍스트화(Re-contextualization)’ 또는 데칼코마니적 변용이라는 크리에이티브 컨셉으로 발전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상징이나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하면서도, 낯선 맥락에 배치하여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방식이다.¹⁰⁾ 디자인 응용에서는 패러디, 오마주, 고전적 타이포그래피의 현대적 재해석, 상징 이미지의 왜곡 및 재투영 등이 활용된다. 이러한 전략은 익숙함과 낯섦 사이의 긴장을 통해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시한다.

[표 2] 리즘 이론의 시각 커뮤니케이션 표현 컨셉 확장

리즘 원리	크리에이티브 컨셉	핵심 디자인 키워드
연결성	네트워크(Network) 모든 것은 연결됨	흐름, 비선형성, 유기적 관계
이질성	하이브리드(Hybrid) 서로 다른 요소 연결	충돌, 융합, 복합 질감
다양체	플렉서블(Flexible) 단일 중심 없음	가변성, 다차원, 중첩
의미단절	글리치(Glitch) 고정된 의미를 거부	해체, 재구성, 변이
지도화	매핑(Mapping) 열린 구조 생성	실험성, 과정, 비정형 사용자 탐색 구조
데칼코마니	리컨텍스트 (Re-context) 복제/반복	데칼코마니, 재해석, 맥락의 변화

8) Schuler, D., & Namioka, A., Participatory Design: Principles and Practice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3, pp.13-14

9) Sanoff, H., Participatory Design. DEPARCH 1(2), 2022, p.2

10) Shklovsky, V., Art as Technique, In Russian Formalist Criticism: Four Essays.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8, p. 20

전통적 시각디자인은 명확한 위계와 선형적 정보 전달 구조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반면 리즘적 시각디자인은 탈중심적 네트워크 구조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결과 의미 생성을 강조한다. 즉, 디자인의 목적이 단순한 정보 전달에서 관계 형성과 의미 생성으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기존 시각디자인과 차별화된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가 제안하는 리즘적 디자인 표현 컨셉의 이론적 의미를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표 3] 전통적 시각디자인과 리즘적 시각디자인의 비교

구분	전통적 시각디자인	리즘적 시각디자인
구조	선형 구조	비선형 구조
조직 방식	위계적 구조	탈중심적 네트워크 구조
정보 흐름	단일 경로	다중 경로
의미 형성	고정된 의미 전달	개방적 의미 생성
수용자 역할	수동적 수용	능동적 참여
디자인 목적	정보 전달	관계 형성 및 의미 생성

3. 리즘적 디자인의 연구 방법 및 분석 틀

3-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리즘의 6가지 원리를 분석 코드로 설정하고 이를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사례에 적용하였다. 각 사례는 연결성, 이질성, 다양체, 의미단절, 지도화, 데칼코마니의 기준에 따라 관찰 및 해석되었으며, 이를 통해 리즘적 구조가 디자인 컨셉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2. 리즘 6원리 기반 분석 프레임워크

3-2-1. 리즘 특성 평가 기준

본 연구는 리즘 이론의 여섯 가지 원리를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사례에 적용하기 위하여 각 원리를 구체적인 분석 항목으로 전환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리즘의 철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디자인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평가 기준과 적용 방법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리즘의 여섯 가지 원리를 시각적 구조, 정보 조직 방식, 의미 생성 과정 및 사용자 경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례 분석 기준을 설정

하였다.

평가는 연결성(Connection), 이질성(Heterogeneity), 다양체(Multiplicity), 의미단절(Asignifying Rupture), 지도화(Cartography), 데칼코마니(Decalcomania)의 여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각 항목은 세 개의 세부 평가 요소를 포함하며, 충족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매우 강(●): 3개 항목 모두 충족

강(◎): 2개 항목 충족

중(●): 1개 항목 충족

약(◎): 일부 요소만 간접적으로 확인

매우 약(○): 매우 제한적으로 확인

없음(X): 해당 특성이 확인되지 않음

1) 연결성(Connection)

연결성은 리종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으로, 서로 다른 요소들이 중심 없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자유롭게 연결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평가 항목

- ① 두 개 이상의 시각적 노드가 존재하는가?
- ② 노드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형성되는가?
- ③ 사용자가 다중 경로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가?

디자인적 의미

연결성은 이미지, 텍스트, 인터랙션 요소들이 고정된 위계가 아닌 네트 구조를 형성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2) 이질성(Heterogeneity)

이질성은 서로 다른 속성, 기능, 의미 체계를 가진 요소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특성이다.

평가 항목

- ① 서로 다른 범주의 요소가 결합되는가?
- ② 서로 다른 매체 또는 표현 방식이 결합되는가?
- ③ 이질적 요소의 충돌이 새로운 의미 생성에 기여하는가?

디자인적 의미

이질성은 다양한 시각 언어가 혼합되면서 기존의

단일한 의미 체계를 확장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3) 다양체(Multiplicity)

다양체는 단일 중심이 아닌 다중 중심 구조를 형성하며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생성하는 특성이다.

평가 항목

- ① 복수의 시각 중심이 존재하는가?
- ②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구조인가?
- ③ 형태 또는 의미가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가?

디자인적 의미

다양체는 디자인이 단일 의미 전달에서 벗어나 복합적이고 개방적인 해석 구조를 형성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4) 의미단절(Signifying Rupture)

의미단절은 기존 의미 체계가 해체되고 새로운 의미 생성이 이루어지는 특성이다.

평가 항목

- ① 기존 의미 관계가 단절되는가?
- ② 새로운 의미 관계가 형성되는가?
- ③ 사용자가 의미를 재구성해야 하는가?

디자인적 의미

의미단절은 관람자의 인지 과정에 개입하여 적극적인 의미 생산을 유도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5) 지도화(Cartography)

지도화는 고정된 구조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로와 관계를 생성하는 특성이다.

평가 항목

- ① 개방적인 탐색 구조를 가지는가?
- ② 읽기 또는 탐색 경로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가?
- ③ 사용자가 스스로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는가?

디자인적 의미

지도화는 사용자의 참여와 탐색을 통해 의미가 생성되는 개방형 구조의 정도를 평가한다.

6) 데칼코마니(Decalcomania)

데칼코마니는 기존 구조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맥락 속에서 변형·재구성하는 특성이

다.

평가 항목

- ① 기존 기호 또는 이미지를 차용하는가?
- ② 새로운 맥락으로 전이되는가?
- ③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는가?

디자인적 의미

데칼코마니는 기존 시각 자원의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본 연구는 사례를 하나의 리좀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였으나, 리좀의 여섯 가지 원리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관계 속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각 사례는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리좀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동시에 다른 리좀 특성의 공존 정도를 함께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리좀의 비위계적·다중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례가 하나의 원리에만 제한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3-2-2. 리좀 6원리 기반 분석 프레임워크

리좀의 6원리를 디자인 분석 프레임워크로 변환하면, 고정된 레이아웃이나 위계 중심의 디자인을 넘어 사용자 경험(UX)의 확장성, 상호작용의 유연성, 시스템의 생명력을 평가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표 4] 리좀 이론의 시각 커뮤니케이션 개념의 변환

리좀 원리	철학 개념	디자인 개념 변환
연결성	모든 것은 연결됨	정보 간 연결 구조
이질성	서로 다른 요소 연결	다양한 콘텐츠/미디어 결합
다양체	단일 중심 없음	다중 사용자 경로
의미단절	고정된 의미나 중심을 거부	비선형 인터랙션
지도화	열린 구조 생성	사용자 탐색 구조
데칼코마니	복제/반복	모듈/패턴 기반 디자인

리좀(rhizome)은 중심과 위계를 거부하고 비선형적이며 다중적인 연결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개념으로, 전통적인 트리 구조(tree structure)와 대비되는 탈중심적 사고 체계를 제시한다. 이러한 리좀적 사고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용자 경험(UX) 디자인에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기존의 위계적 정보 구조와 선형적 사용자 흐름을 전제로 한 인터페

이스 설계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상호작용 구조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는 리좀의 여섯 가지 원리인 연결성, 이질성, 다양체, 의미단절, 지도화, 데칼코마니를 디자인 개념으로 변환하고, 이를 사용자 경험 및 인터랙션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고정된 레이아웃 중심의 디자인을 넘어, 네트워크적 구조와 동적 사용자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안한다.

3-3. 시각디자인에서의 리좀 구조 분석

3-3-1. 사례 선정 기준

본 연구의 사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 ① 두 개 이상의 리좀 특성을 포함할 것
- ② 비선형 정보 구조를 가질 것
- ③ 개방적 의미 생성 구조를 가질 것
- ④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목적을 가질 것
- ⑤ 실제 적용되었거나 공개적으로 발표된 디자인일 것

3-3-2. 시각디자인에서의 리좀 구조 분석

본 연구는 리좀 이론을 기반으로 도출된 디자인 분석 프레임워크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 위하여, [표 6]와 같은 분석 도구를 구성하였다. 해당 분석틀은 다양한 디자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리좀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광고, 아이덴티티, 패키지, 편집, 웹디자인 등 서로 다른 유형의 사례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본 분석틀은 디자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광고디자인, 아이덴티티 디자인, 패키지디자인, 편집디자인, 웹디자인의 다섯 가지 사례 유형에 적용된다. 사례는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주요 영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균형적으로 선정하였으며, 리좀적 특성이 구조적·시각적·상호작용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디자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리좀적 사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광고디자인 사례는 메시지 구조와 시각 요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특히 이미지와 텍스트의 결합 방식, 의미 생성이 주요 분석 대상이다.

둘째, 아이덴티티 디자인 사례는 브랜드 요소 간의

관계성과 확장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시각요소의 일관성과 변형성, 다양한 맥락에서 재구성이 핵심이다.

셋째, 패키지디자인 사례는 물리적 구조와 시각 요소의 통합 방식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형태와 그래픽의 결합, 모듈화 구조, 사용의 확장성이 주요 대상이다.

넷째, 편집디자인 사례는 정보 배열과 시각적 조직 방식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텍스트와 이미지의 관계, 레이아웃의 유연성, 읽기 경로의 비선형성이 포함된다.

다섯째, 웹디자인 사례는 사용자 인터랙션과 탐색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사용자 경로의 다양성과 비선형적 탐색, 인터페이스 확장성이 핵심 요소이다.

리즘의 여섯 가지 원리를 디자인 분석 프레임워크로 전환하면, 고정된 레이아웃이나 위계 중심의 디자인을 넘어 사용자 경험(UX)의 확장성, 상호작용의 유연성, 시스템의 생명력을 평가하는 유효한 도구가 된다. 예컨대, 나이키(Nike)의 디지털 캠페인은 다양한 플랫폼과 사용자 참여를 연결하는 구조를 통해 ‘연결성과 이질성’을 구현하며, 이용자가 콘텐츠 생성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코카콜라(Coca-Cola)의 인터랙티브 광고는 단일 메시지 전달을 넘어 다수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다수성’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증강현실(AR) 기반 광고 사례에서는 현실과 가상이 결합되며 예측 불가능한 경험을 제공하는 ‘비의미적 단절’의 특성이 드러난다. 이러한 사례들은 시각 디자인이 고정된 의미 전달을 넘어서, 유동적이고 확장 가능한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표 5] 리즘 특성 평가 기준

리즘 원리	평가 요소
연결성	다중 노드 / 노드 간 연결 / 다중 읽기 경로
이질성	이질 요소 결합 / 매체 혼합 / 의미 생성
다양체	다중 중심 / 다중 해석 / 가변 구조
의미단절	기존 의미 해체 / 새로운 의미 생성 / 의미 재구성
지도화	개방적 탐색 / 비고정 경로 / 사용자 참여
데칼코마니	기존 기호 차용 / 맥락 전환 / 재의미화

본 연구에서는 각 사례의 리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결성, 이질성, 다양체, 의미단절, 지도화, 데

칼코마니의 여섯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각 특성은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세부 평가 요소의 충족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평가하였다.

예를 들어 연결성의 경우 ‘다중 노드의 존재’, ‘노드 간 관계 형성’, ‘다중 읽기 경로’를 모두 충족할 경우 매우 강(●)으로 평가하였으며, 두 항목을 충족할 경우 강(◎), 한 항목만 충족할 경우 중(●)으로 평가하였다. 다른 리즘 특성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강도 평가는 연구자의 임의적 판단이 아니라, 각 리즘 특성의 세부 평가 기준 충족 여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표 6] 디자인 사례의 분석틀

사례 이미지/기본정보	리즘의 원리					
	연결성	이질성	다양성	의미단절	지도화	데칼코마니
광고디자인	*기본 정보					
-	*리즘적 디자인 표현 컨셉의 유형 및 설명					
아이덴티티	*연결(net) 특성에 기반한 시각커뮤니케이션					
-						
패키지디자인	연결성(net)	서로 다른 기호 요소가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지?				
-						
편집디자인	시각 디자인	그 연결 구조가 어떤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지?				
-						
웹디자인	표현 컨셉의 확장	결과적으로 표현 컨셉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사례 이미지						

(적용양상의 연관성 표기: 매우 강 ●/강 ◎/중 ○/약 ◐/매우 약 ◑/없음 X)

본 연구에서는 각 리즘 특성과 디자인 적용 간의 연관성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정성적 평가를 기반으로 한 단계별 강도 표기 체계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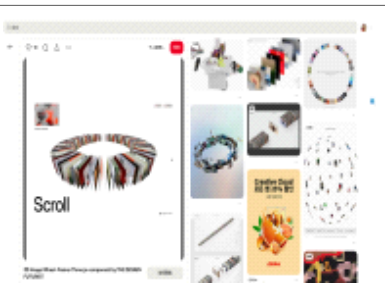
‘매우 강(●)’은 해당 특성이 디자인의 구조와 표현 전반을 지배하며 핵심적인 생성 원리로 작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강(◎)’은 주요한 표현 요소로서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일부 다른 요소와 함께 작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중(○)’은 해당 특성이 부분적으로 드러나며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수준을 나타낸다.

반면 ‘약(◐)’과 ‘매우 약(◑)’은 해당 특성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거나 해석에 따라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없음(X)’은 해당 특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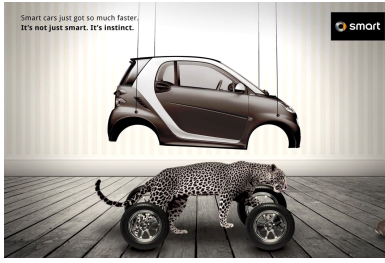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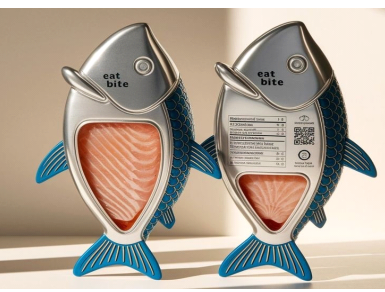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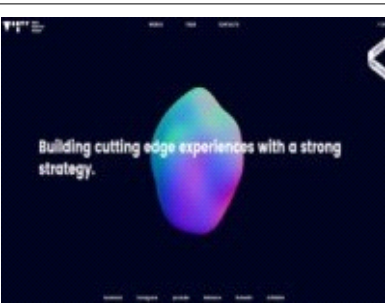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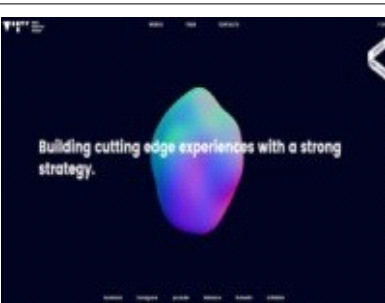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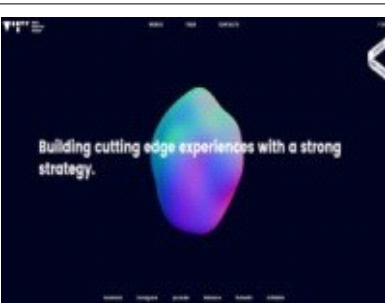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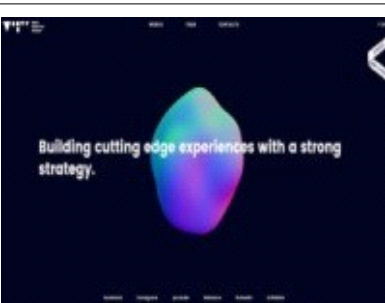
이와 같은 단계적 표기 방식은 복합적인 시각 디자인 구조에서 다양한 리즘 특성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4. 리좀적 디자인 표현 컨셉의 확장 사례

4-1. [표 7] 연결성(Connection) 사례

리좀의 원리		연결성	이질성	다양성	이미지 단절	지도화	데칼코마니						
사례 이미지/기본정보													
	Audi	●	●	●	●	●	●						
	해당 광고는 서로 다른 기후와 지형 환경을 절편식 병치 방식으로 하나의 화면에 통합함으로써 전통적인 단일 장면의 선형적 서사 구조를 해체하고 다중 노드가 병렬적으로 작동하는 시각 구조를 구축한다.												
	연결(net) 특성에 기반한 시각커뮤니케이션												
	연결성(net)	바람, 비, 눈 등의 서로 다른 기후 요소가 한 화면의 상황으로											
	시각 디자인	각 환경은 독립적인 정보 요소로서 수평적 관계 속에서 상호 연결되며,											
	표현 컨셉의 확장	중첩의 연결을 통하여 차량은 유동 매개로서 이를 관통하여 장면 간 연속적인 경험을 형성한다.											
	Tour De France							●	●	●	●	●	●
	해당 로고는 문자 요소를 이미지 구조로 전환하여 선형적 읽기 과정을 해체한다. 관람자는 변형된 글자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문자와 자연적 선수 이미지 사이를 오가며, 의미를 점진적으로 구성하게 된다.												
	연결(net) 특성에 기반한 시각커뮤니케이션												
	연결성(net)	해당 로고는 글자 형태의 재구성과 변형을 통해 시각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인물의 형상을 구축하며											
	시각 디자인	문자와 이미지 간에 상호 중첩된 관계를 형성한다.											
	표현 컨셉의 확장	이러한 디자인은 선형적 읽기 순서를 해체하고 관람자가 문자와 이미지 인식 사이를 지속적으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다중의 이해 경로를 생성한다.											
	aribou Coffee	●	●	●	●	●	●						
	다양한 상징 요소들이 화면 전체에 분산 배치되며 고정된 중심 없이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한다. 요소 간 연결은 형태적 유사성과 시각적 리듬을 통해 생성된다.												
	연결(net) 특성에 기반한 시각커뮤니케이션												
	연결성(net)	화면 내의 다양한 추상적 기호는 파편화된 노드의 형태로 전체 공간에 분포하며,											
	시각 디자인	요소 간에는 인접 관계, 형태적 대응 및 시각적 리듬을 통해 유동적인 연결 상태가 형성된다.											
	표현 컨셉의 확장	이러한 연결은 고정된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다방향, 다중 노드 간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되며, 시각 경로는 이동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동적 네트워크 구조로 나타난다.											
	Ester Mejibovski							●	●	●	●	●	●
	해당 디자인은 전통적인 모듈식 분할의 선형 구조를 따르지 않고 인물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흐르는 곡선 형태 속에 삽입한다. 이로써 정보 간 상호 연결이 이루어지고 노드 또한 동일한 구조 내에서 연계되며 경로를 통해 읽기 관계가 생성된다.												
	연결(net) 특성에 기반한 시각커뮤니케이션												
	연결성(net)	서로 다른 콘텐츠 단위(인물, 이미지, 텍스트)는 더 이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시각적 경로를 통해 연결된다.											
	시각 디자인	이 구조는 읽기 경로를 다양화하고 시각적 유도과 유동성을 강화하며, 정보 조직의 명확성과 콘텐츠 간 논리성을 높이고 파편화된 이해 비용을 낮춘다.											
	표현 컨셉의 확장	전통적 그리드 레이아웃을 탈피하여 높은 식별성을 형성한다.											
Pinterest		●	●	●	●	●	●						
해당 웹페이지는 연관 추천 매커니즘을 통해 다중 노드 간의 동적 연결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경로는 사전에 설정되지 않고 탐색 과정에서 생성된다.													
연결(net) 특성에 기반한 시각커뮤니케이션													
연결성(net)	사용자는 브라우징 중 새로운 경로를 지속적으로 형성하게 되며, 이는 연결성 특성을 나타낸다.												
시각 디자인	관련 콘텐츠 연결 매커니즘을 통해 사용자는 관심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며, 고정된 경로가 아닌 관련 페이지 간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진다.												
표현 컨셉의 확장	이에 따라 사용자는 웹페이지 내에서 지속적으로 흥미로운 콘텐츠를 발견하게 되어 체류 시간이 크게 증가한다.												

4-2. [표 8] 이질성(Heterogeneity) 사례

사례 이미지/기본정보	리종의 원리	연결성	이질성	다양체	의미단절	지도화	데칼코마니
	smart	●	●	●	●	○	○
	해당 광고는 상단에는 완전한 자동차 형태를 배치하고, 하단에는 '바퀴 + 치타의 몸'을 재구성하여 생물과 기계가 결합된 혼합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표현은 전통적인 '객체의 단일 속성' 논리를 해체하고, 속도라는 추상적 개념을 중 간 은유를 통해 구체화한다.						
	이질성(heterogeneity) 특성에 기반한 시각커뮤니케이션						
	이질성	자동차와 치타라는 서로 다른 두 대상을 중간 시각 융합하였다.					
	시각 디자인	서로 다른 재질, 형태, 기능적 속성이 동일한 시각 체계 안에서 공존하며, 이질적 요소 간의 충돌과 연결 관계를 강화한다.					
	표현 컨셉의 확장	해당 디자인은 이질적 요소의 융합을 통해 속도라는 추상적 성능을 시각 가능한 시각적 은유로 전환하며, 제품의 기능을 기계적 속성에서 생물학적 본능 차원의 속도 연상으로 확장한다.					
	Starbucks Corporation	●	●	○	●	○	○
	서로 다른 문화와 의미 체계에 속한 요소들이 고도로 단순화된 시각 구조 안에 통합되어 기호적 차원의 혼합체를 형성한다. 인어 기호는 유혹, 끌림, 물입의 은유를 내포하며, 이는 커피 소비 경험과 정서적으로 대응한다.						
	이질성(heterogeneity) 특성에 기반한 시각커뮤니케이션						
	이질성	신호적 요소(인어), 자연적 요소(물결), 브랜드 이미지가 융합된다.					
	시각 디자인	기하학적 브랜드 그래픽 언어와 자연적 성장 형태가 동일한 시각 체계 안에서 공존하며, 혼합적 시각 구조를 형성한다.					
	표현 컨셉의 확장	이질적 융합을 통해 브랜드 로고는 단순한 상업적 식별 기호를 넘어 자연, 생태,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담는 시각적 상징으로 확장되며, 브랜드 개념에 더욱 풍부한 의미 확장과 정서적 연상을 부여한다.					
	Birds Eye	●	●	●	○	○	●
	시각적·구조적 표현 측면에서 해당 디자인은 물고기의 외형, 통조림 포장, 내부의 생선 살을 융합하여 포장의 형태, 내용, 정보가 서로 연결되도록 한다. 생선 살은 식품에서 직접 포장 구조와 상품 기호로 전환된다.						
	이질성(heterogeneity) 특성에 기반한 시각커뮤니케이션						
	이질성	식품 포장과 어류의 생물학적 형태를 직접 융합하여, 제품 용기와 자연 생물 대상 간의 이질적 결합을 형성한다.					
	시각 디자인	포장 라벨, 지느러미, 어체 구조가 하나의 완전한 시각 이미지로 통합되어, 제품 포장과 생물학적 형태 간의 구조적 융합이 이루어진다.					
	표현 컨셉의 확장	이질적 융합을 통해 제품은 단순한 식품 포장을 넘어 신선함과 자연성에 대한 의미 연상을 부여받으며, 브랜드의 제품 가치 표현을 강화한다.					
	David Bowman	●	●	●	○	○	○
	다수의 이미지가 찢김, 콜라주, 중첩 방식으로 구성되어 강한 이질적 시각적 긴장감을 형성한다. 문자와 이미지는 파편화된 형태로 분할되고 재구성되며, 불규칙한 시각 경로를 통해 서로 연결된다.						
	이질성(heterogeneity) 특성에 기반한 시각커뮤니케이션						
	이질성	서로 다른 스타일의 서체, 사진 이미지, 그래픽 언어가 병치된다.					
	시각 디자인	이미지 분할, 서체 변형, 요소 중첩, 다층 콜라주를 통해 비통일적 시각 구조를 구축하며, 서로 다른 요소 간 강한 시각적 충돌과 혼합 관계를 형성하여 개방적인 이질적 구성 방식을 드러낸다.					
	표현 컨셉의 확장	디자인은 모더니즘의 통일된 시각 규범을 벗어나 정보 전달을 단일한 전달 방식에서 개방적 해석과 다중 의미 생성으로 전환시키며, 리종식 다방향 연결의 시각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보여준다.					
	Resn	○	●	●	○	○	○
	해당 웹페이지의 인터랙션은 전통적인 버튼이나 메뉴 방식이 아니라, 액체 또는 점성 물질의 동적 형태를 모사하여 인터페이스 요소에 흐름, 융합, 변형의 시각적 효과를 부여한다.						
	이질성(heterogeneity) 특성에 기반한 시각커뮤니케이션						
	이질성	동적 그래픽, 인터랙션 인터페이스, 디지털 매체 효과, 유기적 유체 시각 형태가 융합된다.					
	시각 디자인	동적 그라데이션 유체 그래픽과 어두운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시각적 대비를 통해 추상적 디지털 언어와 유기적 형태가 결합된 혼합적 경험 공간을 형성한다.					
	표현 컨셉의 확장	웹페이지는 단순한 정보 제공 인터페이스를 넘어 몰입형 인터랙티브 시각 경험으로 전환되며,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기능적 소통에서 정서적·경험적 차원으로 확장하여 사용자 참여를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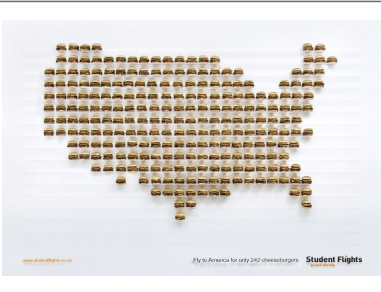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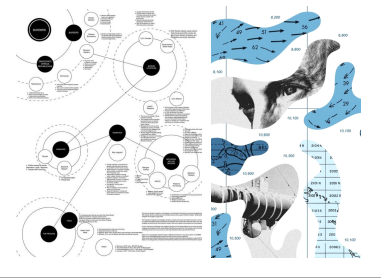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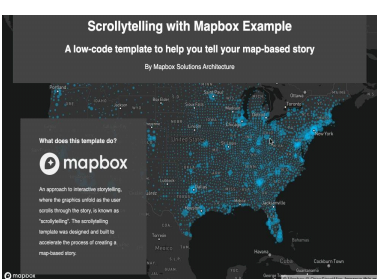
4-3. [표 9] 다양체(Multiplicity) 사례

사례 이미지/기본정보	리즘의 원리	연결성	이질성	다양체	의미단절	지도화	데칼코마니
	Nike	●	●	●	●	●	●
해당 광고는 분할 화면 기법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종목의 운동선수들을 병치하고, 동기화된 동작과 회복력, 연대, 인내 등의 주제를 통해 이를 연결한다. 이는 단일 주제와 선형 서사를 벗어나 다중 노드가 병존하는 병렬 구조를 형성한다.							
다양성(Multiplicity) 특성에 기반한 시각커뮤니케이션							
다양성	여러 운동 자세가 독립적인 시각적 노드로 작동하며, 반복과 방향 변화를 통해 분산된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한다.						
시각 디자인	동적 반복 구조는 단일한 운동 순간을 지속적인 운동 과정으로 확장함으로써 '한계 돌파'라는 브랜드 의미를 강화한다.						
표현 컨셉의 확장	다중 동작 상태의 병치를 통해 지속적인 운동과 한계 돌파의 브랜드 정신을 강화하며, 광고의 의미를 단일 순간의 표현에서 연속적으로 생성되는 운동 경험으로 확장한다.						
	April Wilkerson	●	●	●	●	●	●
해당 시각 시스템은 기하학적 분할과 색채 조합으로 형성된 시각적 문법을 통해 통일성을 유지하며, 차이와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식별 구조를 구현한다. 이러한 다중 노드로 구성된 체계적 표현은 전형적인 다양체 특성을 보여준다.							
다양성(Multiplicity) 특성에 기반한 시각커뮤니케이션							
다양성	다수의 기하학적 모듈이 시각 시스템을 구성하며, 다중 요소가 공존하는 개방적 구조를 형성한다.						
시각 디자인	단순화된 기하학적 형태와 모듈화된 반복 배열을 통해 서로 다른 형태들이 규칙적 질서 속에서 풍부한 변화를 형성한다.						
표현 컨셉의 확장	다양한 도형의 조합은 시각적 표현이 단일 형식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하며, 통일된 식별성을 기반으로 흥미성과 확장성을 높인다.						
	Mikkeller	●	●	●	●	●	●
해당 패키지는 고밀도의 패턴 콜라주를 적용하여 다양한 색채와 질감을 병치하고, 서로 다른 시각 요소의 반복과 중첩을 통해 제품의 여러 부분에 시각적 매력을 부여함으로써 사용자의 시선이 각 영역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유도한다.							
다양성(Multiplicity) 특성에 기반한 시각커뮤니케이션							
다양성	다양한 패턴, 색채, 장식 요소의 조합을 통해 고도로 개방적인 다중 시각 구조를 형성한다.						
시각 디자인	고밀도 콜라주와 반복적 중첩 방식을 통해 패턴은 패키지 표면에서 다방향으로 확장되는 시각적 관계를 형성하며, 시선의 이동 경로는 고정된 중심에 제한되지 않는다.						
표현 컨셉의 확장	다양한 시각 요소는 브랜드의 자유로움, 실험성, 개성적 특성을 강화하며, 패키지를 기능적 용기를 넘어 탐색적 시각 경험의 매개체로 확장한다.						
	Asao Tokolo	●	●	●	●	●	●
해당 사례의 레이아웃은 단일한 시각 중심을 기준으로 전개되지 않고, 여러 시각적 노드가 함께 분산된 구조를 구성하며 전형적인 다양체 특성을 보여준다. 각 요소는 위계 관계가 아닌 시각적 관계를 통해 조직됨으로써 탈중심적 시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다양성(Multiplicity) 특성에 기반한 시각커뮤니케이션							
다양성	다중 요소 간의 관계는 개방적 구조를 형성하며, 전형적인 다양체 특성을 드러낸다.						
시각 디자인	반복되는 기하학적 단위와 자유로운 조합을 통해 복합적인 시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개별 요소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전체 구조의 생성에 참여한다.						
표현 컨셉의 확장	다중 노드 구조는 시각적 의미의 지속적인 확장을 가능하게 하며, 개방성, 연결성, 지속적 생성이라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개념을 강화한다.						
	Spotify	●	●	●	●	●	●
페이지는 내용층, 구조층, 상호작용층 사이에서 다층적 공존 관계를 형성하며, 각 층위는 독립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면서도 전체 규칙 아래 일관성을 유지한다.							
다양성(Multiplicity) 특성에 기반한 시각커뮤니케이션							
다양성	다수의 기능 모듈과 정보 노드는 병렬 구조를 이루며, 다층적 정보 조직 방식을 형성한다.						
시각 디자인	모듈형 레이아웃과 구획 구조를 통해 서로 다른 콘텐츠는 인터페이스 내에서 상대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전체 시스템을 통해 상호 연결된다.						
표현 컨셉의 확장	다양한 정보 구조는 사용자의 자율적 선택과 탐색 경험을 향상시키며, 플랫폼을 단일 재생 도구에서 개방적인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로 확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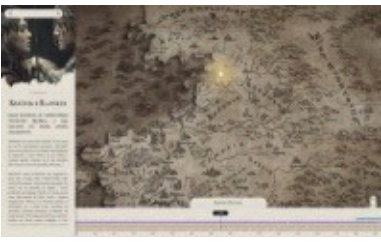
4-4. [표 10] 의미 단절(Asignifying Rupture) 사례

사례 이미지/기본정보	리즘의 원리	연결성						의미 단절	지도화	데칼코마니
		연결성	이질성	다양체	의미 단절	지도화	데칼코마니			
	Softlan	●	●	●	●	●	●			
	의미 단절(Asignifying Rupture) 특성에 기반한 시각커뮤니케이션 렉비 경기에서의 격렬한 신체 접촉을 제시함으로써 원래 충돌과 대립을 상징하던 장면을 포옹과 유사한 시각적 경험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의미의 전환은 기존 기호의 고정된 의미를 해체하고 관람자가 '충돌'에서 '친밀함'으로 재해석하는 인지 과정을 경험하도록 한다.									
	의미 단절	인물 간의 신체 접촉 관계가 재구성되며, 대립이라는 기존 인식은 부드러운 포옹의 시각적 관계로 재부호화된다.								
	시각 디자인	디자인은 신체 자세의 전위와 시각적 맥락 전환을 활용하여, 익숙한 경기 장면을 부드러운 과편향의 감성적 표현으로 재해석한다. 제품 개념은 단순한 부드러움의 기능을 넘어 감성적 신체 촉각 경험으로 확장되며,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은 기능적 소구에서 감성적 연상으로 전환된다.								
	Wikipedia	●	●	●	●	●	●			
	의미 단절(Asignifying Rupture) 특성에 기반한 시각커뮤니케이션 해당 로고는 여러 퍼즐 조각으로 이루어진 구체 형태를 이루지만, 상단 일부 구조가 명확히 결손되어 미완성의 상태를 나타낸다. 동시에 각 퍼즐 조각에는 서로 다른 언어의 기호가 담겨 있어 다원적 정보 단위를 구성한다.									
	의미 단절	미완성된 퍼즐 구조는 전통적인 폐쇄적이고 완결된 기호 인식을 깨뜨린다.								
	시각 디자인	파편화된 모듈과 비폐쇄적 구조를 통해 기호는 고정된 식별 대상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정보 네트워크로 전환된다.								
	MATAR	●	○	●	●	●	●			
	의미 단절(Asignifying Rupture) 특성에 기반한 시각커뮤니케이션 해당 우유 패키지 디자인은 '고양이라는 식별 가능한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분해하여 여러 국소적 단편으로 나누고 이를 서로 다른 패키지 단위에 분산 배치함으로써, 전형적인 '기호 단절' 표현 방식을 형성한다.									
	의미 단절	원래 연속적이고 통일되어 있던 우유 패키지 이미지를 분할하고 분산시켜, 제품 포장의 안정적인 시각적 식별 구조를 단절시킨다.								
	시각 디자인	분산 배치된 부분 이미지는 패키지 간 연결을 통해 새로운 전체 이미지를 형성하며, 개별 패키지 단위의 독립적 경계를 넘어 연속적인 시각 서사를 구성한다.								
	Florian Littke	●	●	●	●	●	●			
	의미 단절(Asignifying Rupture) 특성에 기반한 시각커뮤니케이션 해당 작품은 문자 분해와 어긋남, 단절된 배열을 통해 기존 의미 체계를 해체하고 재구성한다. 이는 문자를 시각 요소로 전환하여 단절 속에서 개방적 의미를 생성하며, 리즘적 기호 단절 특성을 나타낸다.									
	의미 단절	문자 구조의 해체, 단절, 재구성은 언어의 기존 선행적 읽기 논리를 중단시킨다.								
	시각 디자인	문자 요소는 시각적 그래픽으로 전환되어 재구성되며, 읽기 경로는 비연속적이고 도약적인 특성을 보이므로 관람자는 의미 구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Active Theory	●	●	●	●	●	●			
	의미 단절(Asignifying Rupture) 특성에 기반한 시각커뮤니케이션 해당 페이지는 추상적 3D 그래픽, 입자 시스템, 동적 기하 구조로 구성되며, 전통적 웹 페이지의 텍스트와 이미지 기호를 동적으로 생성되는 시각 구조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기호는 탈의미화되어 지각과 상호작용의 매개로 변화한다.									
	의미 단절	추상적 디지털 그래픽, 공간 구조, 동적 인터랙션은 전통적인 웹 정보 제시 논리를 단절시킨다.								
	시각 디자인	디자인은 동적인 공간감과 비선형적 인터랙션 구조를 통해 시각 경험을 구축하며, 인터페이스를 고정된 정보 매개체에서 개방적 지각 공간으로 전환한다.								

4-5. [표 11] 지도 제작(Cartography) 사례

사례 이미지/기본정보	리즘의 원리	연결성	이질성	다양체	의미단절	지도화	데칼코마니
	Student Flights	●	●	●	○	●	●
해당 광고는 형식적으로 지도의 기본 구조 논리를 유지하면서 기호화, 공간 조직, 도형-배경 관계를 계승하고, 전통적인 지도 속 추상적 점 기호를 구체적인 식물 이미지로 대체함으로써 기호를 정보 전달 매개체에서 감각적 매력을 지닌 시각 단위로 전환한다.							
지도 제작(Cartography) 특성에 기반한 시각커뮤니케이션							
지도 제작	지도의 기본 시각 논리를 차용하여 여러 독립적 요소를 식별 가능한 공간적 유곽으로 재구성한다.						
시각 디자인	반복적으로 배열된 소형 시각 단위들이 전체 지도 이미지를 구성하며, 부분과 전체 사이에 동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표현 컨셉의 확장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한 항공 서비스 정보를 넘어 여행, 공간 이동, 삶의 경험에 관한 개방적 시각 서사로 확장되며, 여행을 단순한 이동 행위에서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상상으로 확장한다.						
	Glo Apps	●	●	●	○	●	●
해당 로고는 여러 가지 색상의 곡선 라인으로 구성되며, 이 선들은 중심을 둘러싸고 확산되는 형태로 분포하지만 폐쇄되거나 고정된 구조를 형성하지 않는다. 전체 형태는 하나의 안정된 형상이라기보다 '경로 생성 과정'에 더 가깝다. 이러한 비폐쇄적이고 확장 가능한 구조 특성은 모사물이 아닌 지도적 설계 논리를 드러낸다.							
지도 제작(Cartography) 특성에 기반한 시각커뮤니케이션							
지도 제작	개방적으로 배열된 색채 선들은 비폐쇄적 구조를 구축하며, 확장 가능하고 연결 가능한 개방적 경로 관계를 드러낸다.						
시각 디자인	서로 다른 색채와 곡선 요소가 분산적으로 배열되어 경로 네트워크와 유사한 시각 구조를 형성하며, 관람자는 요소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연결 관계와 읽기 방향을 구성할 수 있다.						
표현 컨셉의 확장	브랜드 로고는 정적인 식별 기호를 넘어 동적이고 개방적이며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디지털 연결 시스템으로 확장된다.						
	Adidas	●	○	●	○	●	●
해당 패키지 디자인은 지도와 인체 접촉 매개를 결합하여 공간 정보에 촉각적 속성을 부여하며, 관람자는 도형을 이해할 때 고정된 경로를 따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한 시각 경로 사이에서 선택하고 연상하게 된다.							
지도 제작(Cartography) 특성에 기반한 시각커뮤니케이션							
지도 제작	지도 경로 구조와 인체의 움직임 궤적이 결합되어 정보가 개방적인 공간 조직 방식으로 제시된다.						
시각 디자인	시각 구조는 네트워크화와 공간적 확장 특성을 드러내며, 경로 중심의 시각적 읽기 경험을 강화한다.						
표현 컨셉의 확장	브랜드 개념은 운동 제품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 공간 탐색, 행동 궤적, 도시 경험을 아우르는 동적 브랜드 서사로 확장된다.						
	Inspiralia	●	●	●	○	●	●
전체 레이아웃은 더 이상 단일 중심을 기준으로 전개되지 않고, 여러 정보 노드와 시각적 단편이 함께 개방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성한다. 화면은 다수의 노드(원점), 연결선, 정보 모듈로 이루어져 정보 네트워크 또는 경로 지도와 유사한 구조를 형성한다.							
지도 제작(Cartography) 특성에 기반한 시각커뮤니케이션							
지도 제작	다수의 정보 노드와 시각 모듈이 함께 개방적 관계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시각 디자인	그래픽, 문자, 이미지 요소는 분산적으로 조직되어 비선형적 읽기 경로를 형성한다.						
표현 컨셉의 확장	정보 전달은 고정된 선형적 설명을 넘어 개방형 지식 탐색 시스템으로 확장되며, 상호작용성과 다의성을 강화한다.						
	Mapbox Storytelling	●	●	●	○	●	●
웹페이지는 서사와 지도를 병치한 구조를 채택하여, 좌측에는 텍스트 중심의 장(章)별 서사 내용이 배치되고 우측에는 동적 지도 인터페이스가 구성된다. 사용자의 스크롤 조작에 따라 지도 시점(중심 위치, 확대 수준, 시점 기울기 포함)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며, 공간 정보와 서사 내용이 동기적으로 전개된다.							
지도 제작(Cartography) 특성에 기반한 시각커뮤니케이션							
지도 제작	지도를 핵심 인터랙션 구조로 활용하여 정보 전달이 개방적 내비게이션 관계를 형성한다.						
시각 디자인	지도의 동적 변화와 콘텐츠 연동을 통해 사용자는 물리적 탐색 경험을 형성한다.						
표현 컨셉의 확장	웹 커뮤니케이션은 정적인 정보 제시를 넘어 인터랙티브한 공간 서사 시스템으로 확장되며,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참여성과 탐색성을 강화한다.						

4-6. [표 12] 데칼코마니(Decalcomania) 사례

사례 이미지/기본정보	리즘의 원리	연결성	이질성	다양체	의미단절	지도화	데칼코마니
	Burger King	●	●	●	●	○	●
해당 광고는 거리 시위 장면의 불꽃 이미지를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맥락에 도입하여, 원래 파괴성과 갈등의 의미를 지닌 불꽃을 버거킹의 '직화구이 공정'을 상징하는 시각적 은유로 재부호화하고, 부정적 사회 맥락의 에너지 기호를 브랜드 개성 표현의 자원으로 전환한다.							
데칼코마니(Decalcomania) 특성에 기반한 시각커뮤니케이션							
데칼코마니	현실의 연소 행위는 기존의 물리적 맥락에서 벗어나 브랜드 상징성을 지닌 시각적 기호로 전환된다.						
시각 디자인	불꽃의 형태와 햄버거 이미지 간의 시각적 유사성을 통해, 동적인 연소 과정은 브랜드의 시각적 기호로 재부호화된다.						
표현 컨셉의 확장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은 제품 제시를 넘어 실제 직화구이 공정과 브랜드 진정성에 관한 시각적 서사로 확장되며, 브랜드의 차별성을 강화한다.						
	Amazon	●	●	○	○	○	●
해당 화살표는 문자 a와 z를 연결해 상품의 포괄성을 상징하며, 미소를 연상시키는 곡선을 통해 감성적 의미를 더한다. 기존의 방향 기호는 정보와 감정을 담는 브랜드 기호로 전환된다.							
데칼코마니(Decalcomania) 특성에 기반한 시각커뮤니케이션							
데칼코마니	문자 구조는 경로와 연결의 의미를 지닌 시각적 기호로 전환된다.						
시각 디자인	화살표가 문자 체계에 삽입되어 기존의 독립적인 문자 정보에 방향성과 연결성의 의미를 부여한다.						
표현 컨셉의 확장	브랜드 로고는 단순한 명칭 식별을 넘어 전 품목 포괄성과 연결 서비스의 시각적 표현으로 확장되며, 브랜드 개념 전달을 강화한다.						
	Bean Playing Tennis	●	●	●	○	○	●
원래 자연 이미지에 속한 완두콩의 구조를 스포츠 제품 맥락으로 전이시켜 테니스공을 열매와 유사한 존재로 재해석함으로써, 유기성과 생명감을 부여하고 의미 영역을 넘나드는 기호의 전이와 변용을 실현한다.							
데칼코마니(Decalcomania) 특성에 기반한 시각커뮤니케이션							
데칼코마니	자연 식물의 형태는 테니스의 속성을 지닌 시각적 대상으로 재전환된다.						
시각 디자인	완두콩 곶두리의 기본 윤곽을 유지하면서 인물 동작과 운동 도구의 시각적 연상을 부여하여, 자연물을 의인화된 운동 이미지로 전환한다.						
표현 컨셉의 확장	시각적 표현은 자연물의 재현을 넘어 가볍고 유쾌하며 역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의 감성적 커뮤니케이션으로 확장된다.						
	McDonald's	●	●	●	○	○	●
해당 디자인은 제품 이미지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밀집 배열된 문자 열을 시각 요소로 활용하여 감자튀김과 유사한 형태 구조로 전환하였으며, 하단의 붉은 색면을 통해 감자 튀김 포장의 시각적 윤곽을 구성함으로써 '읽기 매체에서 '시각적 기호'로의 가능 전환을 실현한다.							
데칼코마니(Decalcomania) 특성에 기반한 시각커뮤니케이션							
데칼코마니	전통적인 신문 텍스트 구조는 브랜드의 시각적 그래픽으로 재부호화된다.						
시각 디자인	고밀도 문자 배열과 전체 형태의 조형적 통제를 통해 읽기 매체의 구조를 이미지화된 브랜드 표현으로 전환하며, 문자와 이미지 사이의 전통적 경계를 허문다.						
표현 컨셉의 확장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한 프로모션 정보를 넘어 흥미와 참여감을 지닌 시각적 인터랙션 경험으로 확장된다.						
	The Witcher	●	●	●	○	○	●
디자인은 정보 노드를 가상 세계의 공간 구조 안에 삽입하여, 원래 정보 전달 매체였던 웹페이지를 서사적 공간으로 전환하고, 내비게이션 행위를 공간 이동 행위로 변환하며, 페이지 계층 구조를 네트워크형 노드 구조로 재구성한다.							
데칼코마니(Decalcomania) 특성에 기반한 시각커뮤니케이션							
데칼코마니	전통적인 지도 구조는 서사 탐색과 사용자 행동 경로를 담는 동적 시각 구조로 재구성된다.						
시각 디자인	지도 인터페이스, 미션 경로, 인터랙션 메커니즘의 통합을 통해 공간 정보는 참여 가능하고 탐색 가능한 서사적 경험 구조로 전환된다.						
표현 컨셉의 확장	시각 커뮤니케이션은 정적인 공간 설명을 넘어 몰입형 스토리 탐색 경험으로 확장되며, 브랜드 세계관 구축을 강화한다.						

4-7. 디자인적 해석

상기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표를 도출하였다.

[표 13] 착시의 적용 양상 분석 결과

사용 목적	속성 명칭	연결성	이질성	다양체	의미 단절	지도화	데칼코마니
연결성	Audi	●	○	●	○	○	○
	Tour De France	●	○	●	●	○	●
	Caribou Coffee	●	○	○	○	○	○
	Ester Mejbowski	●	○	○	○	○	○
	Pinterest	●	●	●	○	●	●
이질성	smart	○	●	○	○	○	○
	Starbucks Corporation	○	●	○	○	○	○
	Birds Eye	●	●	○	○	○	●
	David Bowman	●	●	○	○	○	○
	Resn	○	●	○	○	○	○
다양체	Nike	○	○	○	○	○	○
	April Wilkerson	●	●	●	○	○	●
	Mikkeller	○	●	○	○	○	○
	Asao Tokolo	○	○	○	○	○	○
	Spotify	○	○	○	○	○	○
탈기표적 단절	Softlan	○	○	○	○	○	○
	Wikipedia	●	○	○	○	○	○
	MATAR	○	○	○	○	○	○
	Florian Littke	○	○	○	○	○	○
	Active Theory	○	○	○	○	○	○
지도화	Student Flights	○	○	○	○	○	○
	Glo Apps	○	○	○	○	○	○
	Adidas	●	○	○	○	○	○
	Inspiralia	●	○	○	○	○	○
	Mapbox Storytelling	●	○	○	○	○	○
데칼코마니	Burger King	○	○	○	○	○	○
	Amazon	○	○	○	○	○	○
	Bean Playing Tennis	○	○	○	○	○	○
	McDonald's	○	○	○	○	○	○
	The Witcher	●	○	○	○	○	○

상기 사례 분석을 종합하면, 리즘 이론의 각 원리

는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서 단순한 형식적 특성이 아니라, 디자인 표현 전략으로 작동하며 표현 개념의 확장을 유도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1. 연결성(Connection)

연결성은 시각 요소 간의 관계를 단일 중심의 선형 구조에서 다방향적 네트워크 구조로 전환한다. 이 구조에서 정보는 고정된 순서에 따라 일방향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다수의 노드 간 동적 연결을 통해 개방적인 시각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형성하며, 수용자가 서로 다른 정보 노드 사이를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의미를 구성하도록 유도한다. 그 결과,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은 정적인 정보 제시를 넘어 상호작용적이고 생성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확장되며, 표현 개념은 단순한 정보 전달에서 참여적 경험으로 확장된다.

2. 이질성(Heterogeneity)

이질성은 서로 다른 속성의 시각 요소, 매체, 재질, 의미 체계를 융합하고 충돌시킴으로써 기존의 동질적 시각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의미 관계를 생성한다. 이러한 구조는 시각적 충돌과 인지적 긴장을 형성하여 수용자가 서로 다른 의미 층위 간 능동적 연상과 해석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그 결과,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은 기능적 정보 전달을 넘어 다층적 의미 생성과 브랜드 가치 구축의 과정으로 확장되며, 표현 개념은 단일 제품 정보에서 풍부한 브랜드 문화 경험으로 확장된다.

3. 다양체(Multiplicity)

다양체는 다수의 시각 요소, 정보 층위, 의미 구조가 병렬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를 통해 전통적인 단일 중심 정보 조직 방식을 해체하고, 개방적인 다중 노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러한 구조는 수용자가 다양한 정보 노드 사이에서 비교, 연결, 재구성을 반복하도록 유도하며, 비선형적 인지 경로와 높은 수준의 인지 참여를 형성한다. 그 결과,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은 단방향 정보 전달에서 다중 경로의 의미 생성 과정으로 전환되며, 표현 개념은 정적인 시각 표현에서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커뮤니케이션 경험으로 확장된다.

4. 의미 단절(Asignifying Rupture)

의미 단절은 기존의 기호 구조, 시각 질서, 연속적 관계를 중단·해체·재구성함으로써 수용자의 기존 인지 경로와 의미 인식을 교란한다. 이 과정에서 시각 표현은 불완전성, 파편성, 개방성을 띠게 되며, 수용자는 능동적으로 의미를 보완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그 결과,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은

고정된 의미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의미 구성 과정으로 전환되며, 표현 개념은 단방향적 메시지 전달에서 생성적 해석 구조로 확장된다.

5. 지도 제작(Cartography)

지도 제작은 시각 정보를 경로, 노드, 공간 관계 구조로 조직함으로써 디자인을 고정된 형식과 폐쇄적 구조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입 가능하며 연결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확장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구조는 수용자가 탐색적 방식으로 정보를 수용하도록 유도하며, 전통적인 선형 읽기 방식을 공간적 인지 경험으로 전환시킨다. 그 결과,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은 정적인 정보 제시에서 내비게이션적이고 탐색적인 경험 구조로 확장되며, 표현 개념은 고정된 정보 전달에서 공간적-상호작용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확장된다.

6. 데칼코마니(Decalcomania)

데칼코마니는 기존 현실, 기호, 구조를 단순히 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부호화, 맥락 전이, 구조 재생성을 통해 기존 요소를 원래의 기능과 의미 체계에서 이탈시키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시각적 의미를 생성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수용자가 익숙함과 낯섦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의미를 전환하고 재해석하도록 유도하며, 인지적 참여와 의미 확장을 강화한다. 그 결과,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은 기존 대상을 재현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의미 생산 과정으로 확장되며, 표현 개념은 직접적 재현에서 재해석 가능성과 창의성을 지닌 시각 커뮤니케이션 형식으로 확장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시각디자인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리좀 이론(Rhizome Theory)과 수평적 사고(Lateral Thinking)의 관점에서 시각디자인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전통적인 시각디자인은 단일 논리에 기반한 선형적 서사와 고정된 위계 구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대 시각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시각 표현은 점차 더욱 복잡하고 개방적인 조직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리좀 이론이 제시한 탈중심화와 네트워크 구조, 그리고 기존의 논리적 경로를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탐색하는 수평적 사고의 방식은 현대 시각디자인의 복합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적 시각을 제공한다. 시각디자인 실천에서 수평적

사고는 기존의 사고 경로를 해체하고 다양한 요소 간의 자유로운 결합과 다각도의 연상을 촉진하며, 리좀적 사고는 탈중심화와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개방적인 정보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두 사고 방식은 시각디자인에서 상호 결합되어 디자인 구조가 점차 비선형적인 조직 형태를 나타내도록 한다. 이러한 형식은 단순한 형식적 특성이 아니라 시각 표현 속에서 나타나는 리좀적 사고의 구체적 구현이며, 시각 정보가 이미지, 문자, 기호 사이에서 다중 노드와 다중 경로의 관계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한다. 이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리좀 이론의 여섯 가지 원리를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표현 컨셉으로 전환하고, 이를 Hyper-linked Visual, Hybrid, Flexible Identity, Glitch Aesthetics, Open-ended Layout, Re-contextualization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체계화하였다.

시각디자인에서 리좀적 사고는 탈중심화되고 다중 연결 구조를 지닌 개방적 시스템으로 나타난다. 디자인에서는 다양한 매체, 스타일, 문화적 기호가 병치되며 정보는 다중 감각 채널과 요소 기호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수용자의 인지와 사고를 자극한다. 또한 다중 주제와 다각도의 표현 방식, 그리고 도약적이고 단절적인 시각 및 서사 구성은 인지적 긴장을 유발하며 이러한 시각 전략은 시각디자인이 선형적 틀에서 벗어나 강한 역동성을 나타내도록 한다. 이러한 동적 변화와 개방적 구조를 통해 새로운 해석과 인지 경험이 지속적으로 생성되며, 이는 소비자가 스스로 정보를 정리하고 해석하도록 요구한다. 이와 같이 시각디자인에서 리좀적 사고는 단방향적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의미를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상상력과 정서적 공감을 유발하는 개방적 네트워크로 작동한다.

본 연구는 리좀의 여섯 가지 원리를 하이퍼링크드 비주얼(Hyper-linked Visual), 하이브리드(Hybrid), 플렉서블 아이덴티티(Flexible Identity), 글리치 미학(Glitch Aesthetics), 오픈엔디드 레이아웃(Open-ended Layout),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이라는 디자인 표현 컨셉으로 전환함으로써 현대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표현 가능성을 확장하였다. 이를 통해 리좀 이론의 철학적 개념을 실제 시각디자인의 표현 전략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가 주로 리좀의 철학적 개념적 특성에 주목한 것과 달리, 이를 실제 디자인 사례 분석과 창의적 표현 방법론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연구 결과는 현대 시각디자인이 더 이상 고정된

의미를 전달하는 폐쇄적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요소 간의 관계 형성과 의미 생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방적 네트워크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사용자 참여와 상호작용이 중요해지는 현대 디자인의 특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리좀적 사고와 수평적 사고는 향후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기반의 다양한 디자인 환경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과 새로운 표현 전략을 위한 유용한 이론적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는 질적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사례 선정과 해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일부 개입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리좀적 특성과 디자인 효과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문가 평가와 사용자 실험을 통해 리좀적 표현 특성과 디자인 효과 간의 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AI), 인터랙티브 미디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리좀적 시각 커뮤니케이션 특성에 대한 연구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질 들뢰즈 펠릭스, 『천 개의 고원』 (Mille Plateaux, 새물결, 1980)
1. 김지영 / Kim Ji-yeong, 플렉서블 아이덴티티(Flexible Identity) 브랜드가 창의성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 Journal of Communication Design. Jul 31, 2025
2. 송경희, & Song, K. H, 리좀의 관점에서 본 현대 패션의 모듈성에 관한 연구, 2011,
3. 최진희 (CHOI JIN HEE), 해체주의 건축 이론과 색채표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논문집, 2008
2. George P, Landow, 《Hypertext - TheConvergence of Contemporary Critical Theory and Technology》, 1991
3. Manovich Lev, The Language of New Media, Cambridge, MA: MIT Press, 2001
4. Menkman R, The Glitch Moment(um). Amst erdam: Institute of Network Cultures, 2011
4. Sanoff, H., Participatory Design, DEPARCH 1(2), 2022
5. Schuler, D , & Namioka, A , Participatory Design: Principles and Practice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6. Shklovsky, V, Art as Technique, InRussian Formalist Criticism: Four Essays.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8